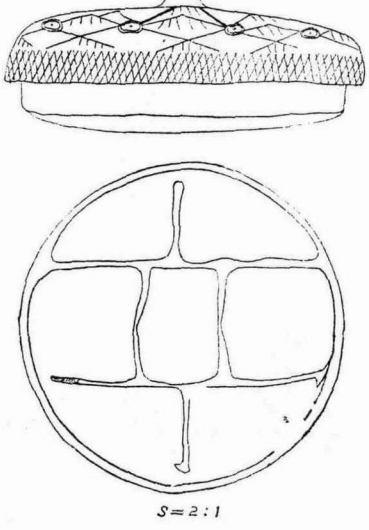
의 鳳凰으로 생각이 되는데 扶餘 窺岩里出土의 鳳凰文塼에 들어 있는 바와 같은 것을 省略簡化한 것으로 推測된다。 中央의 山岳뿌리와 連結된 三角形(山岳)에서 머리로 시작되는 두마리의 S字形鳳凰은 부리(嘴)와 앞으로 나온 작은 날개 그리고 가슴을 서로 맞대고 있는듯 하며 塼에 있는 것과 같은 모양의 날개를 달고 있다。 塼에서와 같이 鷄冠은 보이지 않으나 向右側 봉황에 線刻된 예리한 부리는 分明히 알아볼 수가 있다。 全體各部分의 輪廓을 線刻한 手法은 塼의 그것과 同一하며 날개끝이 渦狀으로 말리지 않은 것은 透彫이기 때문에 技法上 制限을 해버린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꼬리의 處理에 있어서도 한편은 圓形連珠文帶 內緣을 따라 가늘게 圓形으로 돌려져 있으나 金具에 있어서는 拋物線狀의 무게 있고 화려한 意匠을 보이고 있다。 忍冬文이라면 오히려 玉虫厨子의 그것에서 分明히 볼 수가 있겠고 山岳文이 같다는 것만을 들어 이편이 源流가 되어 있는 것을 도리어 附會하는 것은 主從이 바뀔 뿐 아니라 鳳凰을 忍冬으로 보게되는 原因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된다。 아라베스크風으로 左右 均齊하게 놓는 것은 이 밖에도 많은 類例가 있거니와 金具의 中央에 垂直線을 긋고 보면 양편의 文樣은 分明히 鳳凰의 모습을 띠는 것 같다。 對象의 實體가 雲文으로 보이는 경우는 漢時代의 漆器 그림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가령 龍의 運動과 어떤 部分의 움직임에 대하여 力動的인 表現初果를 나타낼 경우가 그것이다。 이 金具의 文樣은 玉虫厨子에 보다는 塼의 그것과 더욱 밀접한 近親關係가 있을 것이며 抽象的인 雲文 忍冬文에 보다는 훨씬 鳥類(註)(鳳凰)의 實體와 가까운듯 하다。

(註) 鳥文에 관한 새로운 硏究는 金元龍博士의 「高句麗古墳壁畵의 起源에 대한 硏究」(震檀學報 第二十一號)를 參照

新羅의 蓋付土器

洪 思 俊

이 土器는 月城郡 內南面 望星里(새말)에서 出土되었다고 傳하는 보기드문 異例의 遺物이다。 上下 二個로 分離되었고 밑의 土器에 위의 蓋가 깊숙히 덮이게된 灰色土器이다。身部의 內面을 보면 橫으로 二段이 同間隔으로 막혀졌고 上段과 下段으로는 縱으로 一段이 막어져서 總七孔이면서 中間孔만은 四角이나 器周의 孔들은 圓周에 따라 松餠形에 가까울다。 土器의 身蓋表面의 文樣은 圓周外側은 身蓋가 交窓形의 線文이 그어졌으며 蓋는 不幸히 破損이 甚하나 原形을 알아볼 수 있는데 蓋의 손잡이는 頂面이 平平하고 圓形의 꼭지가 中央에 달려 있다。 蓋表面에도 손잡이 周圍에 小圓 七個가 同間隔으로 羅列되었고 周緣에도 同樣의 小圓이 線刻되었는데 現存한 小圓이 十一個가 남아 있으므로 本是는 二個가 더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小圓間에는 雜多한 縱橫線이 交替되고 있다。


S=2:1

이 土器의 用途를 생각할때 高麗磁器中에 化粧具가 있음을 보아서 羅代부터 이러한 그릇이 쓰여져서 高麗로 傳하지 않았나 推測된다。

크기

	高	直徑
身部	五・二cm	一五・三cm
蓋部	四・六cm	一七・〇cm

正豊二年銘小鍾 (서울 朴秉來 氏藏)

鄭 永 鎬

이 小鍾에 對하여는 黃壽永氏가 本誌에 그 拓銘을 紹介하여(註) 이미